소리의 시대 현대적 일상의 시작

이 성 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 들어가며 : 라디오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현대사

대표적인 근대적 미디어로서 라디오는 대한민국의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 해왔다. 안방의 한 구석을 차지하는 거대한 장비에서 한 손에 들어오는 매체로, 이제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의 하나로 작아진 라디오는 그 외양의 변화만큼이나 역할과 모습을 다양하게 바꾸며 진화해왔다. 라디오가 열어준 '소리'의 역사는 우리가 '근대'라고 말하는 사회적 변화 과정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라디오는 새로운 정보와 사상의 전파에 있어서 핵심적 기술로 여겨졌다. 한편 냉전의 맥락에서 한반도는 전파 출력이 동아시아 최대에 달할 정도로 전파 밀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총과 칼을 대신하여 차가운 전쟁을 수행했다. 한편, 라디오는 사람들을 울고 웃게 했던 위안의 미디어였다. 라디오가 울려 퍼지던 방안, 스피커 앞에 모여 앉았던 기억, 밤과 아침을 깨워준 소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감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 변화하는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고, 온 가족이 추억의 시간을 만들기도 했던 우리의 현대적 일상과 함께 해온 매체가 바로 라디오 방송이었다.

이 글은 라디오 방송의 역할과 성격의 역사적 변화를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읽어내려는 시도다. 식민지시기, 일본 제국의 지방 방송으로 시작된 '신비의 소리'는 특히 1950년대와 60년대, 건국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미디어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라디오 방송의 역할과 위상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2. 前史: 일본의 지배 하에서 시작된 라디오의 역사

1) 한반도에서 라디오 방송의 시작

한반도에서 라디오의 역사는 식민지시기인 1927년에 시작되었다. JODK란 호출부호를 가진 경성방송은 일본의 근대적 통신망 형성의 과정에서 라디오망의 확대의 산물이자, 식민지에 진출한 자국민을 위한 서비스였다. 일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편성에서 우리의 언어는 일부 시간을 할당받아 부분적으로 전파를 타고 수신기로 흘러갈 수 있었다.

1924년 12월 17일, 조선일보사의 주최로 우리말로는 처음으로 '무선 전화방송 공개시연'이 이루어졌다. 조선총독부 체신국의 무선 전화방송 송수신 시험방송으로부터 1주일 뒤의 일이었다. 조선일보 사장실에서 여기자 최은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당대의 명창 이동백의 창과 해금, 양금 연주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 수천의 시민들이 '기적', '신비'의 일로 여기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1] 라디오는 근대 과학기술의 상징으로서 신기함과 놀라움의 대상이었다.

1926년 11월에는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 설립되었다. 일본에서는 각 지역별로 하나의 방송국만 인가한다는 체신성의 방침에 따라 지역별로 방송 법인들이 설립되었는데, 식민지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2] 청취료는 월 2원씩 받기로 하고, 허가받은 청취자에게는 '청취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취했다.[3] 1927년 2월 16일에는 경성방송(호출부호 : JODK) 정규방송이 1kW의 출력으로 일본어와 우리말 교차방송(일본어와 우리말 비율 7:3)이 시작되었다. 가청범위는 경성과 그 주변 지역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개국 당시 당국에 신고된 수신기는 경성의 경우 일본인 584대, 조선인 171대였다.[4] 이 시기에는 직접 조립해서 귀에 대고 듣는 수화기식의 광석식 수신기가 대부분이었는데, 10~20원 수준으로 일반 시민에겐 여전히 비싼 가격이었고, 확성기가 달린 전지식 수신기는 상류사회의 장식용으로 갖추는 값비싼 귀중품이었다.[5] 정규방송이 시작된 이후로 조선인의 수신기 보급률은 한동안 답보상태였다. 1929년 9월부터 경성방송은 일본방송중계를 시작했고, 조선어 방송은 일본인 중심의 편성에 밀려 방송 시간도 줄어들었다.[6] 값비싼 수신기와 청취료를 납부하고도 제대로 된 방송을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인 청취자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7]

1930년대에 들어서서 조선인을 청취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 속에서 경성방송국이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한국어와 일본어 방송을 다른 채널에서 분리해서 방송하는 이중방송이 시작되었다. 조선인 청취자를 늘리기 위한 이중방송 실시와 전국 방송망 확충 계획은 1930년대 일본 제국의 정치경제적 필요 속에서 라디오의 위상 변화와 긴밀히 연결된 것이었다. 일본 본토의 경제 불황 속에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방송에 의한 대중 교화와 국책 선전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8] 조선방송협회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조선인 청취자를 회유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다.[9] 일본어 제1방송과와 한국어 제2방송과를 분리했고, 이중방송용 10kW '방송소'를 설치하여 1933년 4월 26일부터 이중방송이 시작되었다.[10] 이때부터 본격적인 한국의 라디오 문화의 기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35년부터는 지방 방송망도 순차적으로 설치하면서,[11] 청취자를 확보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마련해갔다.

2) 라디오와 식민지 대중문화

식민지시기 라디오 방송의 역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식민 지배를 위한 도구의 하나였던 라디오가 조선의 대중문화, 특히 문학과 음악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다. 1933년 4월 26일에 한국어 방송 채널이 마련되면서, 편성이 안정화 되고 연예오락 프로그램들도 활성화되었다.[12] 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조선인들의 라디오 보급대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표 1. 참조).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정보의 필요를 느낀 사람들의 라디오 등록이 크게 늘었다. 여전히 전체 인구로 보면 적은 수였고, 주로 경성과 일부 큰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근대적 대중문화의 원형들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연도	조선인		일본인	
	등록대수	보급률	등록대수	보급률
1926	336	0.01	1,481	1.27
1927	949	0.03	4,161	3.50
1928	1,353	0.04	7,102	5.79
1929	1,573	0.05	8,558	6.72
1930	1,448	0.04	9,410	7.45
1931	1,754	0.05	12,493	9.58
1932	2,738	0.07	17,641	13.58
1933	6,401	0.17	25,444	18.75
1934	9,584	0.25	30,660	21.68
1935	14,537	0.37	37,958	26.21
1936	22,777	0.56	49,349	32.28
1937	40,107	0.99	71,168	44.93
1938	48,966	1.19	78,433	49.38
1939	75,909	1.84	90,425	56.23
1940	116,935	2.76	109,694	66.28
1941	144,912	3.31	125,882	73.35
1942	149,653	3.26	126,047	70.28
1943	168,884	3.7	131,348	71.8

표1) 식민지시기 라디오 등록대수 및 가구당 보급률(%) (김영희, 2007, 69쪽)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방송 편성은 낮에는 '경파'라 불리는 보도, 교양 방송 중심이었고, 저녁에는 '연파'라 불리던 드라마, 고담, 음악 등 오락 방송이 중심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중방송 실시 이후로 오락 방송의 비중은 늘어나는데, 기존 한국어 방

송 시간에서 16.7%에 불과했던 오락 방송이 이중방송 실시 직후 42.3%까지 늘어났다.[13] 이러한 경향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라디오의 선전매체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면서 강연, 강좌 등의 편성이 늘어나는 시점까지 이어졌다. 국악 방송이었던 〔명창대회〕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고,[14] 다양한 형식의 방송극도 인기를 끌었다. 이 과정에서 대중적인 스타가 탄생하기도 했는데, 평양 기생 출신인 왕수복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15] '야담'으로 불리는 역사이야기도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을 즐겁게 했다. 당대 야담계의 '거성'이었던 윤백남을 시작으로 무수히 많은 '야담가'가 방송을 통해 배출되기도 했다.[16]

3) 황민화와 전쟁 동원의 도구

1937년 중일전쟁에 이어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라디오는 전쟁의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자리잡았다. 전파는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 간에 서로를 견제하고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되었다. 전쟁이 총력전으로 진전됨에 따라 라디오 역시 동원의 수단이자 자원으로 여겨졌다. 1930년대에 일시적으로 열렸던 문화적 공간은 전시 동원의 과정에서 급속히 닫혔다.

라디오가 근대적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도구였음에도, 근본적으로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도구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총독부는 매일 아침 〈궁성요배〉와 〈황국신민의 서사〉방송을 실시하게 하면서 라디오를 황국신민화를 위한 동원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는 1940년대를 넘어오면서 정오 시보를 전후한 1분간의 묵념시간으로까지 확장되었다.[17] 또한 전 국민을 하나의 통일된 행동으로 정렬시키는 〈라디오체조〉도 정책적으로 보급되었다.[18] 〈라디오체조〉는 황국신민으로 신체와 정신을 획일화하는 훈육의 전략으로 활용되었다.[19] 1941년 2차대전 발발 이후로는 모든 방송국이 일본 군부의 대본영에 예속되었고, 결국 1942년 4월 27일, 조선어 제2방송이 폐지되기에 이른다.

특히 한국에 설치된 방송국 JODK의 전파 출력 강화는 당시 일본의 전쟁 수행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당시 조선의 인접 국가였던 소련과의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방송 전파의 안정적인 송수신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였다.[20] 식민지 조선의 방송 역사는 2/3가 방송 시설 확장공사로 시종일관되었다는 회고가 있을 정도였다.[21] 당시 인접국가의 방송국에서 강력한 전파가 빈번히 들어와 (민중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방의 견지에서 대전력의 방송을 실시할 필요가 절박하다는 주장이 한국주둔일본군으로부터 나오기도 했다.[22] 당시 서울에선 공중선 전력 75kW인 남경과 북경의 중국어 방송뿐만 아니라 소련의 100kW 대출력 방송을 청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23]

전파의 월경을 이용한 선전전의 증가는 방송 출력을 일종의 군사력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본국이 섬에 위치함으로써 대륙과의 접경에 위치한 선전전의 실질적인 요충지는 식민지 조선이었다. 식민지시기 방송 정책들은 당시 한반도에서의 방송 시설이 전쟁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총독부 당국은 본국인 동경에서 보다 한발 먼저 1936년부터 방송 출력 증강공사에 착수했고,[24] 1937년 4월 17일부터 '경성중앙방송국(JODK)'의 출력을 50kW로 증강하여 대출력 방송을 개시했다.[25] 일본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 경성방송국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북방 국가의 선전 방송을 방해하기 위한 '전파전'(jamming)의 수행이었던 것이다.[26]

정보의 청취와 유통 자체가 전쟁의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단파 방송을 통해 들려오는 적국의 소리를 듣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반향과 저항으로 여겨졌다. 방송국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들이 '미국의 소리(VOA)'와 중경의 임시정부에서 보낸 단파방송을 청취하여 전황을 전파하다 투옥된 '단파방송청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였다.[27]

3. 대한민국의 건국과 냉전을 배경으로 시작된 소리의 시대

1) 해방과 미군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작과 라디오 : 전파전쟁의 시대

1945년 8월 15일, 한국인들에게 '해방'을 알린 것은 제2방송을 통해 나온 일왕의 항복선언방송이었다. 연합군이 서울에 입성하고 9월 9일 항복조인식이 거행되고 미군정이 선포되면서, 일본어 방송이던 제1방송에서도 한국어가 나오기 시작했다.[28] 제1방송에서 울려 퍼진 한국어야말로, 해방을 실감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다.

미군정의 시작과 함께 방송국에는 미국인 고문관이 파견되었고, 기존 조선방송협회 직원들을 계승하여 방송을 이어갔다. 『톰소여의 모험』을 반공 소년 탐정극으로 각색한 〔똘똘이의 모험〕이 1946년 10월부터 3년간 300여 회 방송하는 등 미국식 편성과 제작 방식이 도입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1945년 10월 개국한 WVTP 주한미군 방송은 미국의 대중음악을 해방 공간 서울에 거주하던 청취자들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29] 라디오에서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 미국의 선전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1950년대 라디오는 미국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창구였다. 6 · 25 전쟁 중에 개국한 AFKN 라디오에서도 미국 군인들을 위한 재즈와 팝송이 흘러나오면서 한국의 젊은 청취자들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한국 방송의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인에 의해 방송의 목적과 방식이 결정되고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47년 9월 3일 국제무선통신회(ITU)의 회의에서 한국에 호출부호 'HL'을 할당하였다. 이와 더불어 JODK란 호출 부호는 사라지고 HLKA라는 새로운 호출부호를 가진 라디오 방송이 출범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방송을 국영화하여 서울중앙방송국(KBS)을 공보처 산하에 두었다. 국영방송은 정부의 공보 매체이자 국내외 대상 반공 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하였다. 1948년에 건국한 '대한민국'은 그 정당성을 안과 밖에서 모두 인정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한국에서 라디오 방송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지정학적-시대적 상황을 맥락으로 시작되었다. 라디오 방송이 '국영'이란 형태로 시작된 것은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놓인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라디오는 국가 소유의 '공보' 매체이자 선전전의 무기로 출발하게 된다.

이 시기의 라디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파 전쟁'의 맥락은 중요하다. 국경을 넘나들며 울려 퍼질 수 있었던 라디오는 냉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여겨졌다. 청취자들도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서 국영방송의 정부 선전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반공 · 대북 선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왜 더 강하게 못하느냐는 질책을 가할 정도였다. 대한민국의 방송은 자유진영의 최첨단에 놓인 무기이자 방패의 역할을 해야 했다. 건국의 초기부터 국가 전체의 경제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방송의 물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은 방송을 일종의 '무기'로서 여겼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과 냉전의 시작이란 역사적 조건은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기반의 상당부분을 상실한 가난한 신생국가 한국을 동아시아에서도 손꼽을 대출력 방송의 요충지로 변모하는 특수한 상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특히 6 · 25 전쟁은 실질적인 물적 자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수준에서 방송 기술과 '국방력'이 긴밀하게 연결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쟁 수행을 위한 방송 시설의 복구 과정에서 방송의 사회적 용도는 보다 강력하게 '선전'이란 목적으로 집중되었던 것이다. 당시 방송에서 대북 선전을 하는 것은 전쟁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일상적인 것이었다. 전쟁 직후인 1953년까지 방송 기술은 전쟁이란 시대적 맥락에서 비롯된 '심리전'의 기획 안에 포섭되어 있었던 것이다.

AFKN과 VUNC 등 미군(U. S. Army)과 관련된 방송들도 대부분 전쟁을 계기로 설치되었다.[30] UN군 총사령부 방송은 극동지역의 공산권에 대한 '자유의 소리'를 전해주는 강력한 심리전 방송으로서 6 · 25전쟁을 계기로 1950년에 한국에 설치되어 대적-대민 선전의 핵심 수단으로서 활용되었으며, 국영방송 KBS의 시설 복구에도 크게 기여했다.[31] 또한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위한 방송인 AFKN(American Forces Korea Network)의 라디오 방송도 1950년 7월에 한국에 세워졌다.[32]

6 · 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영방송은 전황보도와 반공의식 고취, 국민의 '위안'을 목표로 삼았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정부의 거짓방송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비판에 직면했다. 1951년에는 부산으로 방송국이 이동하면서 전황방송에 주력했다. 6 · 25 전쟁 이후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으로서 심리 선전 방송의 전파가 유례없이 집중된 전파 전쟁의 전장이었다. 휴전 후 방송 시설 복구는 전파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송신소 출력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대북방송과 해외 단파방송 등 대외방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영방송 독점을 깨고 1954년에 설립된 최초의 민간방송이 기독교방송(HLKY, CBS)였다는 점은 당시 방송이 냉전의 맥락에서 전파전쟁의 수단으로 이해되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33] 개신교는 당시의 맥락에서 반공 이념에 가장 투철한 집단 중 하나였다. 1956년 설립된 복음주의 방송(HLKX, 現 극동방송) 역시 대공산권 선교를 위해 설립된 일종의 냉전 선전 방송이었다. 냉전 체제하에서 공산지역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선교사 파견이 불가능한 공산지역에 대한 선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라디오 방송 전파를 통한 선교활동이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복음주의방송이 개국하게 된 것이다.[34] 20kW의 출력으로 해외방송에 주력했던 복음주의 방송은 이후 1959년에는 출력을 50kW로 강화하여 그 가청범위를 더욱 확장하기도 했다.

2) 위안의 매체로서 라디오 문화의 성장

1953년 6 · 25 전쟁 휴전 이후 라디오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1954년에는 최초의 민영방송인 기독교방송(CBS, HLKY)의 개국으로 국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1956년 국영방송은

대외방송을 제2방송으로 분리하고 제1방송은 종일 방송을 실시하며 일반 대중을 위한 방송에 주력하게 되었다. 1956년의 시민위안의 밤은 이러한 '위안' 매체로서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라디오는 즐거움을 주는 매체로 점차 성장하게 되었다.

방송에서 '위안'이란 기능은 이미 식민지시기부터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35] 그러나 한국에서 '위안'의 역할이 본격화된 것은 6·25 전쟁 이후였다. 이데올로기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던 기독교 방송의 개국은 전파전의 맥락에서 허용된 것이었지만, 실제 사회적 역할은 전후 위안의 정서 속에 새롭게 싹트던 문화적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식민지시기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대중문화의 기반으로서 방송의 역할은 1950년대 중반부터 다시 본격화되었다.

6·25 전쟁을 통해 방송 역량을 강화한 국영방송 KBS는 휴전 직후부터 대대적인 방송 시설을 건설했다. 195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방송 운용, 기술, 편성, 제작 등에서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36] 1956년을 기점으로 KBS는 방송 제작과 편성과 관련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는데, 그 범위는 국악 라이브러리의 제작과 관현악단, 합창단의 조직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었다.[37] 공보실은 새롭게 설치된 100kW 송신소 2기를 활용하여 제2방송을 창설, 이중방송을 실시했다. 이는 선전 방송을 제2방송에 집중시키고 일반 방송을 제1방송에 종일 방송으로 배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방송 시간의 증가와 채널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었다. '종일 방송'으로 1차적으로 증가한 제1방송의 방송시간은 교육·대외 방송 시간이 제2방송(호출부호 HLSA, 56년 당시 주파수 710kHz)으로 옮겨감에 따라 여유시간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고, 이렇게 늘어나게 된 시간의 상당부분이 '오락물'로 채워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파급효과가 컸던 프로그램은 다름 아닌 〔청실홍실〕(1956)이었다.

3) 라디오 보급을 위한 노력

〔청실홍실〕의 인기로 라디오 연속극 붐이 일면서, 본격적인 라디오의 대중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1956년까지는 라디오보급대수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1959년에 이르러서는 1957년과 비교해서 거의 2.5배에 가깝게 변화(137,031대→346,154대)했다(표 2. 참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라디오 편성의 변화와 더불어 국산 라디오 수신기의 생산도 이루어졌다.

최초의 국산 라디오 A-501의 모델명은 A자는 AC(교류)에서, 5자는 5구식 진공관 라디오라는 것이고, 01은 제품 1호라는 의미였다.[38] 1959년 11월 15일에 출시된 금성A-501호 라디오의 초기 생산량은 87대 정도였고 가격은 2만환으로 시중에서 3만 3천환에 거래되던 미국산 라디오에 비해 저렴한 편이었다.[39] 초기에 외국산에 밀려 고전했던 국산 라디오는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에서 대대적인 밀수품 근절과 라디오 보급 운동을 전개하면서 급속히 성장했다.[40]

1950년대 후반 공보실의 활동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은 이동방송차 활동과 앰프촌 형성이었다. 먼저 이동방송차량은 전국적인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였다. 송신소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기간을 고려할 때 난청지구를 일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동방송차를 운용한 것이다.[41] 또한 일종의 마을방송인 '앰프촌' 건설을 추진했는데, 앰프 하나에는 스피커 100개를 달 수 있으므로 한 부락에 앰프 하나만 설치하면 부락민 모두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42] 이러한 노력은 이후 군사정권에서도 이어졌는데, 앰프촌은 '국가 시책의 신속 정확한 보급' 수단으로 '거미줄처럼 마을 구석구석'에 퍼져나간 공보 수단이기도 했다.[43]

연도	라디오 수신기		인구 1000명당 보급대수
	각종 라디오	유선방송스피커	
1948	156,733		7.83
1949. 3	144,412		7.15
1957. 1	137,031		6.43
1959. 12	346,154		15.07
1960	420,414		16.82
1961. 9	707,033		27.44
	588,519	118,514	
1963. 1	1,414,834		51.90
	815,774	599,060	
1965. 9	1,920,265		66.90
	1,173,658	746,607	
1967. 7	2,455,797		81.50
	1,658,456	896,341	
1970. 1	3,053,259		97.03
	3,400,350	369,034	
1971	3,769,384		114.63
	3,400,350	369,034	
1972	4,300,000		128.34
	4,000,000	3,000,000	
1973	4,958,041		145.38
	4,892,018	66,023	

표2) 전국 라디오 수신기 보급추이 (김영희, 2007, 84쪽)

라디오 방송 보급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1960년대에도 이어졌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공보의 필요에 따라 유선라디오 방송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쳤다.[44] 라디오는 문맹률이 높았던 농어민에게 정부의 정책과 반공 선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매체로 평가되었기 때문이었다.[45] 군사정부는 방송의 선전 효과를 초기부터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국영방송 보수와 방송청취상태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46]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정한 개발도상 국가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시설의 충족여부를 측정하는 최저 기준에 1962년 말 라디오가 가장 먼저 도달하기도 했다.[47] 특히 발전저널리즘으로 대표되는 미디어에 대한 근대화 이론은 이 시기 공보 정책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었다.

1960년대 초반의 라디오 경험은 근대화되는 국가의 현장들을 매개하는 것인 동시에, 여가의 수단으로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위안과 즐거움을 얻는 복합적인 실천으로 평가받는다.[48] 1960년대 전후의 라디오는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했고, 공적 경험과 사적 경험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개인, 가정, 마을 공동체, 국가공동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본격적인 사회적 매체로 제도화되었던 것이다.[49] 1960년대 초반 다양한 국가행사, 민족 기념일, 대중 축제 등이 라디오를 통해서 전달되는 등 군사쿠데타 이후 라디오는 '국가경험의 매개자'로서의 위치를 부여받았다.[50] 이는 미군정기 이후로 지속되어 온 국가권력으로부터 종속화를 통한 공적 문화의 생산과, 개인화, 상업화, 일상성 중심의 사적 문화의 생산과 소비라는 두 가지 요인의 접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51] 대중의 문화적 욕구와 국가의 공보적 필요가 맞물리며 라디오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지배적 매체로 우리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4. 라디오 전성시대 : 새로운 대중문화의 시작

1) 민간 라디오 전성시대와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의 인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민간방송국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부산문화방송(HLKU)의 시작은 '상업'적 목적으로 방송을 운영하려 한 주체에게 방송이 허락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부산은 1950년대에 전파의 '월경'현상으로 인해 일본방송의 청취인구가 매우 많았던 지역이다. 게다가 당시엔 일본인이 남기고 간 단파방송 라디오가 남아있어서 이 라디오를 통해 일본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따라서 공보부의 입장에서도 부산지역에서의 일본방송 청취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52] 결국 1958년 7월 14일부로 '상업용 방송무선전화 시설허가'와 '상업용 방송송신무선전화 시설허가'를 체신부로부터 받아내어 1959년 4월 15일 한국의 본격적인 민간상업방송인 부산문화방송(HLKU)이 개국하게 된다.[53] 부산문화방송은 상업방송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높은 청취율 확보를 통해 광고수익을 창출해야만 했고, 따라서 오락적인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는 '인기 위주'의 상업적 편성을 시행했다.[54] 부산문화방송과 기독교방송은 4·19 혁명이라는 역사적 전환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보도에 임하면서 민간방송의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각인시켰다.

1960년대는 본격적인 민간 라디오 전성시대였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라디오는 다양한 민간방송이 서로 경쟁하며 '광고'를 매개로 상업적 성장을 거두면서 많은 청취자를 끌어들였다. 그야말로 라디오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라디오는 당시 문화의 중심에 있었다. 라디오 수신기와 스피커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1960년대 중반에는 '라디오 전성시대'가 개막했고, 라디오는 수많은 대중의 정보와 오락 매체로 전환된 것이다.[55] 1961년 MBC 라디오, 1963년 4월 DBS(동아방송), RSB(이후 TBC 동양 라디오) 등 새로운 민간 상업 라디오 방송국이 속속 개국했다. 민간 방송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본격적인 라디오 방송문화가 활짝 꽃피었다. 라디오 수신기 보급과 광고 시장도 함께 성장했고, 광고 시장의 확대로 방송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갔다.[56]

특히 청취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었던 라디오 드라마를 둘러싸고 방송사 간 경쟁도 치열해졌다. 1970년대 초까지는 아직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라디오 방송극이 서민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57] 방송국마다 거의 매 시간 하나 혹은 둘의 연속극 띠를 편성하기도 했다.[58] 라디오 드라마는 1966년도에 153편, 1967년도에 143편, 1968년도에 160편이 제작되는 등 1960년대 라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59]

동아방송(DBS)과 동양방송(TBC) 라디오의 개국 이후로 민영방송사들 간의 경쟁 체제가 확고해져 갔다. 1966년 7월 공보부의 '전국방송청취자조회' 결과에 따르면, 민간방송의 가청 지역에서 KBS1의 청취율은 2.5%, TBC는 17.5%로 TBC가 7배 정도의 압도적으로 높은 청취율을 보이기도 했다.[60]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KBS가 가장 넓은 가청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민간방송은 그 가청지역 내에서는 높은 청취율로 국영방송을 압도했던 것이다.[61]

라디오 전성시대의 소위 '황금시간'은 저녁 7~9시였는데, 아침 7~8시와 낮 12~1시에도 높은 청취율을 보였다.[62] 저녁 황금시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라디오 드라마'였다. 민영방송사들은 매일같이 방송극을 내보내며 치열하게 경쟁했다. KBS의 〔라디오 극장〕과 〔KBS 연속극〕, CBS의 〔KY극장〕, 〔이것이 인생이다〕, MBC의 〔해바라기〕, 〔연속무대〕, DBS(동아방송)의 다큐 드라마 〔여명 80년〕, TBC 동양방송의 〔아차부인 재치부인〕, 〔광복 20년〕 등은 청취자를 사로잡은 대표적인 방송 프로그램이었다.[63]

특히 1960년대에는 멜로드라마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송극의 영화화라는 상업성과 결부된 현상이기도 했다.[64] 〔산 넘어 바다 건너〕(조남사 作) 등 1957년부터 1959년까지 3년간 방송된 연속극은 거의 영화화되어 방송가와 영화가의 화제가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다.[65] 1956년에 〔청실홍실〕이 인기를 끌고, 이듬해에 영화화되면서 라디오연속극의 영화화가 본격화되었다. 1956년에서 1960년에 이르는 시기에 서울중앙방송국에서 방송된 라디오 연속극은 일요 연속극 9편, 일일연속극 24편이었는데, 이 중 영화화된 것은 일요 연속극 8편, 일일연속극 16편으로 각각 88.9%와 66.7%에 달했다.[66] 특히 이들은 대부분 현대 멜로드라마였는데, 방송 종료 2년 이내에 대부분 영화화되었다.[67]

2) 라디오 방송의 대중화와 다양한 방송 장르의 발전

전성기를 맞이한 라디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장르가 '공개 오락 방송'의 포맷이었다. 청취자가 함께 참여하는 오락 방송은 라디오의 또 다른 인기 프로그램이었다.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공개방송은 라디오 편성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 〔노래자랑〕(1955)과 〔스무고개〕(1947) 등의 공개방송은 첫 방송이 시작할 때부터, '출연자와 방청자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높은 인기를 얻었다.[68] 동아방송의 〔유쾌한 응접실〕은 '국보 양주동 박사' 등 인기 출연자를 배출한 대표적인 공개 오락 방송으로 인기를 끌었다. 라디오 시기의 공개 오락 방송은 이후 텔레비전에서의 시청자 참여형 방송 포맷의 원형이 되기도 했다.

스포츠 중계도 초기 라디오 방송에서부터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국가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라디오를 통해 중계함으로써 온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1948년 런던올림픽 중계방송으로 시작해서 해외 경기에 아나운서들을 파견하여 중계방송을 이어갔고, 이러한 과정에서 방송 장비의 송출과 수신 등에서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졌다. 1950~60년대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스포츠이벤트를 비롯하여 아마추어 복싱,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이 임택근, 이광재 등 인기 아나운서들의 현장감 넘치는 중계를 통해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전화 리퀘스트 음악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다. 외국의 최신 유행 음악을 소개하는 전화 리퀘스트 프로그램인 〔탑툰쇼〕(1963. 4. 28.)가 시작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69] 1964년부터는 프로듀서 최동욱이 직접 대본을 쓰고 방송을 진행하는 DJ(Disk Jockey)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70] 음악감상실에서 내공을 쌓은 DJ들이 라디오 방송에 진출하면서 세계의 인기 팝송을 라디오를 통해 적극적으로 감상하는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1965년 12월 20일, 동아방송이 방송시간을 아침 5시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해 하루 21시간 방송을 시작하면서 심야방송 경쟁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71]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야방송 경쟁은 팝음악을 방송하는 음악 프로그램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밤의 디스크쇼〕 등은 하루에 수백통의 신청엽서가 오는 등 청소년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72]

이러한 인기 방송을 토대로 라디오는 대중적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라디오는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수용자가 하루 3시간 이상 접촉하는 대중미디어로 부상했다.[73]

3) 라디오 저널리즘의 성장

민간 라디오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송 저널리즘의 시대도 그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부산문화방송의 방송보도가 주목을 받은 이후로 라디오의 뉴스 매체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1960년대에 등장한 상업방송국들은 뉴스를 경쟁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TBC는 개국 해인 1964년에 정시뉴스를 1일 15회, DBS는 같은 해 16회, KBS는 15회, MBC는 13회, CBS는 18회를 편성하는 등 거의 전 시간대에 각 방송사가 뉴스를 같이 내보냈다.[74] 라디오는 신문에 비해 현장성과 속보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살린 녹음취재와 실황중계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속보성은 라디오 뉴스 경쟁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라디오 석간〕이라는 7시 종합 뉴스프로그램이 1964년 시작되면서, 라디오 방송 저널리즘은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아나운서의 뉴스 낭독 사이에 녹음 인터뷰, 현장음, 음악 등을 넣어 만든 종합녹음구성 뉴스쇼였다.[75] 이러한 새로운 포맷은 타 방송사들로 확대되면서 사람들에게 '뉴스 매체'로서의 라디오란 인식을 확대시켜 주었다. 동아방송이 뉴스 분야를 선도함에 따라 각 방송사들은 신문사와의 제휴를 통해 보도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다.[76]

1960년대에 들어서는 라디오 매체의 특성을 살려 뉴스의 즉시성을 강화하기 위한 생방송 포맷의 와이드 퍼스낼리티 뉴스쇼가 자리잡기 시작했다.[77] 동아방송의 〔뉴스 쇼〕(1969. 10)를 시작으로 〔뉴스전망대〕(TBC) 등 다른 방송사들도 앞다투어 유사한 포맷의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라디오 방송 뉴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탄압도 이루어졌다. 1964년 6월의 '앵무새' 사건은 방송 언론 최초의 필화사건이자, 방송현업인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유일한 정치적 필화 사건이었다.[78]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 대일외교를 비난하는 학생 데모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동아방송 간부들과 PD가 구속되었고, 이후 오랜 재판을 거쳐 1969년 12월 전원 무죄 선고로 마무리 되었다. 1970년대에는 유신정국에서 정부의 언론통제가 극심해지면서, 사회비판적인 시사고발이나 정치 뉴스 보다는 비정치적인 뉴스와 해외취재가 중심을 이루기도 했다.[79]

4) TV 시대의 라디오

라디오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중매체의 주인공 자리를 텔레비전에 내어 주어야 했다. 텔레비전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무섭게 그 성장세를 이어갔다. 라디오는 1972년을 기점으로 광고수입에서 텔레비전에게 뒤지기 시작하는 등[80] 변화하는 미디어 지형에서 새로운 위치를 만들어가야 했다. 일일연속극, 공개오락방송 등 오락물의 주도권이 텔레비전으로 넘어가면서 라디오는 '정보'와 '음악' 편성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특히 청취자를 세분화하여 전문적이고 특정 계층에게 적절한 정보와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 텔레비전 시대의 라디오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공의 전략으로 여겨졌다.[81]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프로그램인 〔가로수를 누비며〕(1964, TBC)를 시작으로 〔푸른 신호등〕(1966, MBC), 〔달려라 유쾌하게〕(DBS, 1969) 등은 오늘날 교통방송의 원형을 만들어갔다. 1970년대 초반에는 주부 대상 프로그램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여성을 중요한 청취자로 끌어들였다. 특히 1975년에 시작된 〔임국희의 여성살롱〕(MBC)은 〔여성시대〕로 이름을 바꾸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도 했다.[82]

텔레비전 시대의 라디오 편성의 기저에는 청취 형태의 '개인화'라는 변화가 반영되어 있었다. 1960년대 중반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대량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후 가족 공동이 청취하는 형태에서 점차 개인이 혼자 청취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었던 것이다.[83]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라디오 드라마를 청취하던 모습에서 점차 개인이 라디오를 소유하고 각자 원하는 방송에 집중하는 모습이 라디오 청취의 주된 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거실의 주인공은 텔레비전이 되었다. 가족 매체의 자리를 텔레비전에 내어준 라디오는 사람들 개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소형화, 개인화 된 라디오는 이동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매체가 되기도 했다. '움직이는 텔레비전' 시대가 오기 전까지 라디오는 유동 인구를 위한 중요한 매체로 그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5. 나가며

라디오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는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형태를 바꾸어가며, 우리의 삶 구석 구석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으론 실시간으로 사연을 읽고 반응하는 형태의 라디오가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고, 한편에선 '팟캐스트'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들이 조용히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미디어 지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오늘날 라디오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면서 나름의 자리를 만들고 진화하고 있다.

라디오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시작과 함께한 중요한 미디어였다. 근대 국가 건설과정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식민지 지배, 냉전의 시작과 전개, 근대화 프로젝트의 추진, 대중문화의 발전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라디오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디오는 우리가 만들어 온 '현대'의 모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라디오의 역사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언론학을 넘어 역사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방송에 대한 역사 연구가 불모에 가까웠던 것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연구가 활성화되어 우리가 만들어 온 '현대'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길 기대해본다.

1) 서재길(2005). JODK 정성방송국의 설립과 초기의 연예방송.「서울학연구」, 28호, 151쪽.
2) 앞의 글, 153~155쪽.
3) 앞의 글, 155쪽.
4) 김영희(2007). 한국의 방송매체 출현과 수용현상. 정진석 외,「한국방송 80년, 그 역사적 조명」(70쪽). 나남.
5) 백미숙(2007). 라디오의 사회문화사. 유선영 외,「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311쪽). 한국언론재단. 경성방송국에서 보급한 수신기는 10원~60원 수준이었고,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진공관식 확성 수신기는 1구식이 40~50원, 2구식은 100원을 넘는 고가였다.
6) 김영희. 앞의 글, 70쪽.
7) 백미숙. 앞의 글, 316쪽. 월 2원이었던 청취료는 1927년 10월 1일부터 월 1원으로, 1938년 4월부터 75전으로 인하했다. 1929년 조선인 남자 성년공의 일일평균 임금이 1월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비싼 가격이었다.
8) 정지선(2013). 전시기(戰時期) 일본의 라디오 방송과 대중의 국민화: 라디오 청취지도를 중심으로.「동양사학연구」, 제125호, 373~374쪽.
9) 백미숙. 앞의 글, 316쪽.
10) 앞의 글, 316쪽.
11) 정진석(2007). 방송80년의 발전과 명암. 정진석 외,「한국방송 80년, 그 역사적 조명」(29쪽). 나남.
12) 박용규(2010). 일제하 라디오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언론정보연구」, 47권 2호, 142쪽.
13) 앞의 글, 145쪽.
14) 백미숙. 앞의 글, 318~319쪽.
15) 앞의 글, 320쪽.
16) 고은지(2008). 1930년대 오락물로서 역사의 소비: 야담방송과 '월간야담'을 중심으로.「대중서사연구」, 제19권, 191~224쪽.
17) 임종수(2010). 수용자의 탄생과 경험: 독자, 청취자, 시청자-다중 미디어 시대의 개막에 관한 시론적 연구.「언론정보연구」, 47권 1호, 101쪽.
18) 앞의 글.
19) 백미숙. 앞의 글, 330쪽.
20) 박순애(2005). 조선총독부의 라디오 정책 1937~1945.「한중인문과학연구」, 15호, 263~280쪽.
21) 유병은(1988).「방송야사」. KBS문화사업단. 50쪽.
22) 박순애. 앞의 글, 274쪽.
23) 정진석. 앞의 글, 14쪽.
24) 앞의 글.
25) 박순애. 앞의 글, 275쪽.
26) 서재길(2007). 일제 식민지시기 라디오방송과 '식민지 근대성'. 정진석 외,「한국방송 80년, 그 역사적 조명」. 나남.
27) 정진석. 앞의 글, 35쪽.
28) 백미숙. 앞의 글, 334쪽.
29) 박용규(2014). 주한미군방송(WVTP)의 등장과 영향(1945~1950).「한국언론학보」, 58권 1호, 356~380쪽.
30) 한국방송공사(1987).「한국방송60년사」. 한국방송공사. 298~300쪽.
31) 앞의 글, 298쪽.
32) 앞의 글, 300쪽.
33) 이성민 · 강명구(2007). 기독교방송의 초기 성격에 관한 연구 1954~1960: 냉전시기 라디오 방송환경과 선교방송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한국방송학보」, 21권 6호, 407~456쪽.
34) 강대인(1986). 종교방송에 관한 고찰.「사회과학논총」, 4권 1호, 91~107쪽.
35) 엄현섭(2010). 전시기 라디오 방송콘텐츠와 방송극 연구.「일본사상」, 제28집, 199~218쪽.
36) 장영민(2014).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한국어방송'의 변화와 그 원인(1953~1973).「한국근현대사연구」, 제68집, 282쪽.
37) 노정팔(1995).「한국방송과 50년」. 나남.
38) 김해수 · 김진주(2007).「아버지의 라디오」. 느린걸음, 145쪽.
39) 앞의 글, 146~147쪽.
40) 앞의 글, 163쪽.
41) 노정팔. 앞의 글.
42) 앞의 글.
43) 임태훈(2011).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와 붉은 소음의 상상력: 1960년대 소리의 문화사 연구를 위하여.「대중서사연구」, 제25호, 298쪽.
44) 윤상길(2011). 1960년대초 한국 유선라디오 방송제도의 성립과 발전: 공보부와 체신부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한국방송학보」, 25권 1호, 159~204쪽.
45) 앞의 글, 195쪽.
46) 이강수(1999).「커뮤니케이션과 정통성: 한국 권위주의 정권의 왜곡적 커뮤니케이션」. 나남. 172쪽.
47) 김영희. 앞의 글, 373~374쪽.
48) 주창윤(2011). 1960년 전후 라디오 문화의 형성과정.「미디어 경제와 문화」, 9권 2호, 37쪽.
49) 앞의 글.
50) 앞의 글, 25쪽.
51) 앞의 글, 38쪽.
52) 노정팔. 앞의 글, 373~374쪽.
53) 박재용(1993).「한국초기 민간상업방송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4) 앞의 글.
55) 장영민. 앞의 글, 264쪽.
56) 최창봉 · 강현두(2002).「우리 방송 100년」. 현암사. 161쪽.
57) 윤금선(2010). 1960~70년대 초기 라디오 드라마의 전개 양상.「한국극예술연구」, 제32집, 302쪽.
58) 백미숙. 앞의 글, 352쪽.
59) 윤금선. 앞의 글, 266쪽.
60) 윤금선(2012). 방송 청취 경향과 라디오 드라마 현황: 1950-70년대 초기를 중심으로.「국어교육연구」, 제50집, 560쪽.
61) 앞의 글.
62) 앞의 글, 563~564쪽.
63) 윤금선(2010). 앞의 글, 303~305쪽.
64) 윤금선(2012). 앞의 글, 584쪽.
65) 윤금선(2010). 앞의 글, 289쪽.
66) 최미진(2010). 1950년대 후반 라디오연속극의 영화화 경향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9집, 124쪽.
67) 앞의 글, 125쪽.
68) 백미숙. 앞의 글, 349쪽.
69) 앞의 글, 364쪽.
70) 백미숙. 앞의 글, 364쪽.
71) 이윤하(2001). 동아방송 18년 편성의 뒤안길. 한국TV방송50년위원회,「한국의 방송인: 체험적 현장기록 한국방송 1956-2001」(182쪽). 커뮤니케이션북스.
72) 백미숙. 앞의 글, 366쪽.
73) 김영희. 앞의 글, 115쪽.
74) 백미숙. 앞의 글, 359쪽.
75) 앞의 글, 359쪽.
76) 앞의 글, 361쪽.
77) 앞의 글, 362쪽.
78) 앞의 글, 360쪽.
79) 앞의 글, 363쪽.
80) 앞의 글, 368쪽.
81) 앞의 글, 369쪽.
82) 앞의 글, 373쪽.
83)